

오피니언

금남로에서

조경완



그의 눈은 늘 젖어있는 듯했다. YS에 패해 영국으로 떠난던 공화대합실에서...

죽어라 일해온 국민들, 더 짙게는 3공화국 이래 2류국민으로 살아온 호남 사람들의 눈물을 아는 지도자였다.

그의 눈물은 한없는 고독과 죽음에의 공포, 그리고 그것들이 불러온 살아있는

그가 없는 아침에

것들에 대한 외경심에서 나왔을 것이다. 인공(人共)때 총살을 면한 것이나 동경

것들에 대한 외경심에서 나왔을 것이다. 인공(人共)때 총살을 면한 것이나 동경 남치사건 때 천행으로 살아남은 것이나 신

것들에 대한 외경심에서 나왔을 것이다. 인공(人共)때 총살을 면한 것이나 동경 남치사건 때 천행으로 살아남은 것이나 신

것들에 대한 외경심에서 나왔을 것이다. 인공(人共)때 총살을 면한 것이나 동경 남치사건 때 천행으로 살아남은 것이나 신

것들에 대한 외경심에서 나왔을 것이다. 인공(人共)때 총살을 면한 것이나 동경 남치사건 때 천행으로 살아남은 것이나 신

회의원후보 김대중과 공화당후보 김병삼 씨의 유세가 열렸다.

얼굴에 철망 마스크를 한 경찰들이 빙 둘러선 가운데 인산인海的 정중들이 "떡고 보자 김병삼 찍고 보자 김대중"을 연호하던 열광적 장면은 평생 잊혀지지 않는다.

그가 떠난 날 전라도의 사람들은 말이 없었다. 금남로의 빈 택시들은 언제나처럼 길게 늘어섰고 손님 없는 식당의 찬모

그가 떠난 날 전라도의 사람들은 말이 없었다. 금남로의 빈 택시들은 언제나처럼 길게 늘어섰고 손님 없는 식당의 찬모

그가 떠난 날 전라도의 사람들은 말이 없었다. 금남로의 빈 택시들은 언제나처럼 길게 늘어섰고 손님 없는 식당의 찬모

그가 떠난 날 전라도의 사람들은 말이 없었다. 금남로의 빈 택시들은 언제나처럼 길게 늘어섰고 손님 없는 식당의 찬모

그가 떠난 날 전라도의 사람들은 말이 없었다. 금남로의 빈 택시들은 언제나처럼 길게 늘어섰고 손님 없는 식당의 찬모

그가 떠난 날 전라도의 사람들은 말이 없었다. 금남로의 빈 택시들은 언제나처럼 길게 늘어섰고 손님 없는 식당의 찬모

그가 떠난 날 전라도의 사람들은 말이 없었다. 금남로의 빈 택시들은 언제나처럼 길게 늘어섰고 손님 없는 식당의 찬모

그가 떠난 날 전라도의 사람들은 말이 없었다. 금남로의 빈 택시들은 언제나처럼 길게 늘어섰고 손님 없는 식당의 찬모

그가 떠난 날 전라도의 사람들은 말이 없었다. 금남로의 빈 택시들은 언제나처럼 길게 늘어섰고 손님 없는 식당의 찬모

그가 떠난 날 전라도의 사람들은 말이 없었다. 금남로의 빈 택시들은 언제나처럼 길게 늘어섰고 손님 없는 식당의 찬모

그가 떠난 날 전라도의 사람들은 말이 없었다. 금남로의 빈 택시들은 언제나처럼 길게 늘어섰고 손님 없는 식당의 찬모

그가 떠난 날 전라도의 사람들은 말이 없었다. 금남로의 빈 택시들은 언제나처럼 길게 늘어섰고 손님 없는 식당의 찬모

말없이 철창 울던 모습은 또 어찌나 깊게 기억되던지.

필자는 이인제·이회창후보와 함께 그가 대통령선거전을 치르던 때 후보 부인들을 초청한 한 대담에서 그의 부인 이회

그가 떠난 날 전라도의 사람들은 말이 없었다. 금남로의 빈 택시들은 언제나처럼 길게 늘어섰고 손님 없는 식당의 찬모

그가 떠난 날 전라도의 사람들은 말이 없었다. 금남로의 빈 택시들은 언제나처럼 길게 늘어섰고 손님 없는 식당의 찬모

그가 떠난 날 전라도의 사람들은 말이 없었다. 금남로의 빈 택시들은 언제나처럼 길게 늘어섰고 손님 없는 식당의 찬모

그가 떠난 날 전라도의 사람들은 말이 없었다. 금남로의 빈 택시들은 언제나처럼 길게 늘어섰고 손님 없는 식당의 찬모

그가 떠난 날 전라도의 사람들은 말이 없었다. 금남로의 빈 택시들은 언제나처럼 길게 늘어섰고 손님 없는 식당의 찬모

그가 떠난 날 전라도의 사람들은 말이 없었다. 금남로의 빈 택시들은 언제나처럼 길게 늘어섰고 손님 없는 식당의 찬모

그가 떠난 날 전라도의 사람들은 말이 없었다. 금남로의 빈 택시들은 언제나처럼 길게 늘어섰고 손님 없는 식당의 찬모

그가 떠난 날 전라도의 사람들은 말이 없었다. 금남로의 빈 택시들은 언제나처럼 길게 늘어섰고 손님 없는 식당의 찬모

그가 떠난 날 전라도의 사람들은 말이 없었다. 금남로의 빈 택시들은 언제나처럼 길게 늘어섰고 손님 없는 식당의 찬모

그가 떠난 날 전라도의 사람들은 말이 없었다. 금남로의 빈 택시들은 언제나처럼 길게 늘어섰고 손님 없는 식당의 찬모

그가 떠난 날 전라도의 사람들은 말이 없었다. 금남로의 빈 택시들은 언제나처럼 길게 늘어섰고 손님 없는 식당의 찬모

그가 떠난 날 전라도의 사람들은 말이 없었다. 금남로의 빈 택시들은 언제나처럼 길게 늘어섰고 손님 없는 식당의 찬모

시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8일 서거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또 다시 전직 대통령을 잃은 우리의 슬픔은 너무나 크다.

김 전 대통령의 정치 생애는 우리나라의 민주발전과 궤를 같이 해 왔다. 김 전 대통령은 시대의 격랑을 온몸

김 전 대통령의 정치 생애는 우리나라의 민주발전과 궤를 같이 해 왔다. 김 전 대통령은 시대의 격랑을 온몸

김 전 대통령의 정치 생애는 우리나라의 민주발전과 궤를 같이 해 왔다. 김 전 대통령은 시대의 격랑을 온몸

김 전 대통령의 정치 생애는 우리나라의 민주발전과 궤를 같이 해 왔다. 김 전 대통령은 시대의 격랑을 온몸

김 전 대통령의 정치 생애는 우리나라의 민주발전과 궤를 같이 해 왔다. 김 전 대통령은 시대의 격랑을 온몸

김 전 대통령의 정치 생애는 우리나라의 민주발전과 궤를 같이 해 왔다. 김 전 대통령은 시대의 격랑을 온몸

김 전 대통령의 정치 생애는 우리나라의 민주발전과 궤를 같이 해 왔다. 김 전 대통령은 시대의 격랑을 온몸

김 전 대통령의 정치 생애는 우리나라의 민주발전과 궤를 같이 해 왔다. 김 전 대통령은 시대의 격랑을 온몸

김 전 대통령의 정치 생애는 우리나라의 민주발전과 궤를 같이 해 왔다. 김 전 대통령은 시대의 격랑을 온몸

김 전 대통령의 정치 생애는 우리나라의 민주발전과 궤를 같이 해 왔다. 김 전 대통령은 시대의 격랑을 온몸

김 전 대통령의 정치 생애는 우리나라의 민주발전과 궤를 같이 해 왔다. 김 전 대통령은 시대의 격랑을 온몸

경계와 외교통일분야에 대한 해박한 식견은 대통령 재임 시절,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됐다.

IMF 외환위기를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극복한데는 국민들이 합심한데다 고인의 준비된 지도력 덕분이었다.

남북 공존을 토대로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한 고인의 각별한 노력은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져 한반도에 화해무드가 조성됐고 그 공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최초로 노벨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은 고인이 추구해왔던 정치 철학과는 괴리가 크다.

김 전 대통령이 일생을 다해 노력해왔던 민주주의는 퇴보하고 있다.

서울광장은 다시 닫혔고, 생존권 투쟁을 하다 희생된 용산참사는 아직도 미안성이다.

신혈을 기울였던 남북공존과 화해 노력도 위기에 처했다.

현 정부 출범이후 급격히 냉각된 남북 관계는 남북경협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마저 한때 쉼표를 찍을 위기에 처했다.

국민의 정부 시절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기초였던 햇볕정책은 "북한의 핵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는 식으로 폄하되고 있다.

대통령의 통치 행위는 당대에 쉽사리 평가를 내릴 수 없는 측면이 많다.

상당수는 역사의 뒤로 남겨진다. 이념과 입장에 따라 지지자나 반대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야 정권교체를 실현해 한국정치사의 신기원을 이루었고 지역주의 타파와 권위주의 정권에 기여한 점은 인정받아 마땅하다.

민주화, 분권화 노력과 억울한 소수층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들이자 김 전 대통령이 일생 동안 추구해왔던 신념이기도 하다.

고인이 추구해왔던 민주와 인권, 남북 화해의 정신을 이어가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과제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를 애도하며

민주·인권·남북·화해정신이 어져야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편칼럼 서미정. 최근 장애인 여행차 보험가입 차별 진정건에 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있었다. 장애인 보험가입을 종가함에 있어 비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비싸고 보장한도가 낮은 상품을 종가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것이다.

기고 김효성. 광주는 500년 동안 우리나라 문화를 이끌어온 지역이다. 500년이라는 시점은 북구 충효동과 담양군 남면 광주호 인근 지역에서 한국가사(歌辭)문화의 꽃을 피웠던 1,500년대를 말한다.

장애 차별 받았을 때 1577-1330 누르세요. 권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 보험가입에서 겪고 있는 차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2007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당사자에 의해 만들어진 법으로 시행한지 1년이 지났다.

광주문학 500년 발자취 '문학관'에 담는다. 광주는 500년 동안 우리나라 문화를 이끌어온 지역이다. 500년이라는 시점은 북구 충효동과 담양군 남면 광주호 인근 지역에서 한국가사(歌辭)문화의 꽃을 피웠던 1,500년대를 말한다.

無等鼓 출산을 제로(0). 우리나 출산율이 기막히다. 올해 출산율은 1.08명인데 2007년 황금돼지해의 후유증도 있던 하나, 출산율 급락의 직격탄은 경제난 때문이라는 게 설득력이 높다.

위로금을 장애인 성금으로 쾌척한 주부에 감사. 필자가 봉사활동으로 나가는 장애인 복지 시설에는 항상 목욕탕 찾아와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50대 중반의 아주머니가 계신다.

병원 화장실서 담배 피우지 말았으면. 얼마 전에 친구가 눈에 물을 뿌려 들어갔다가 뺨에 물러 병원에 있다고 해서 고향으로 병문안을 갔다. 그런데 병문안을 간 병원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曹慶完.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